

봉사활동

원주보훈요양원, 와상 노인 대상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봉사활동 실시

지난 3월 14일 원주보훈요양원에서 한선영 학과장, 문소정 교수, 김한나 교수와 대학원생 5명(총 8명)이 참여하여,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24년부터 교수진과 대학(원)생 중심으로 입소 노인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지수준이 낮아 자가관리가 어려운 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 마사지를 실시하고, 구강 상태를 점검한 후, 개인별 맞춤형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간호사와 영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치매 노인의 구강관리 중요성과 실제 관리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봉사팀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 근육 이완을 위한 마사지를 제공했다. 이어서 항균제를 이용하여 구강점막과 치아의 청결을 유지하는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시행하였으며,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보습제 도포, 틀니 세척 등의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치매 노인을 위한 구강 건강 증진에 있어 학문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보훈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개인 맞춤형 구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특히 협조도가 낮은 노인에게 전문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요양원 및 입소 노인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